

불교문헌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동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 불교한문아카데미 개설

불교원전 문헌 강독과 번역에 기초한 한국불교 특화 교육과정이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1월 10일 불교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ABC: Archives of Buddhist Culture, 이하 ABC) 사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불교융합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6년 과정의 불교한문아카데미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ABC사업은 한국불교문헌을 디지털라이징 하는 사업으로 고려시대 최고 기술이던 목판 인쇄술을 이용한 대장경 판각에 이은 21세기형 대장경 복사이다.

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은 “15년에 이르는 장기 프로젝트인 ABC사업이 원만하게 회향하려면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ABC사업 등 불교문헌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불교융합학과와 불교한문아카데미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은 “HK사업을 진행하는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동국대에 관련 독자학과가 개설됐다”고 소개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개설되는 한국불교융합학과는 대학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한국불교학 융합 전문과정이다. 학과에서는 불교원전 강독·번역에 기초한 한국불교의 특화된 교육과정으로서 연구·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학제적 융합교과를 운영해 해외 대학과의 국제교류와 제도적 공조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동국대의 한국불교융합학과 개설은 학과이기주의를 타파한 유사학과간 대승적 화합의 결과라는 의미도 있다. 교육정책상 학교 전체 정원이 제한된 현실에서 한국불교융합학과 개설에는 불교대학 학과·교수간 양보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융합학과는 개설 첫 학기인 2012년 전기에 불교한문번역학과 불교문헌해석학 2개 전공 석사과정생 00명을 모집한다.

한국불교융합학과에서는 ①불교문헌학·강독교과 ②문헌기반의 한국불교 특성과 교과 ③글로벌(글로벌+로컬) 융합 교과별 수업이 진행된다.

진학생들은 분과학문의 장벽을 넘는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 융합과 통섭을 통해 한국불교와 동아시아 불교를 잇는 전문연구자로 배출된다.

불교한문아카데미는 현장 법사와 운허 스님의 맥을 잇는 한문불전 번역자 양성을 목표로 개설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ABC 사업 연계 불교원전강독·번역 특화과정 개설 한국고전번역원 등 관련기관 공조 HK사업 지정학교로는 동국대 최초

김종욱 원장은 “불교한문아카데미는 불교가 단지 불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한국학으로서 본래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지향한다”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능력 있는 강사진이 담당해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 학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불교한문아카데미는 경전·논서·사서 등 3개반을 기본으로, 기본·심화·전문 각 2년의 6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매 학기 야간 강좌(18시 30분~21시 30분)로 3과목을 이수하고 기본·심화 과정에서는 선택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원 이진해 여목 개회한 해외저명 학자 초청 특강에서 로버트 버스웰 교수의 강의 모습.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 개설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인재 양성이 기대를 받게 됐다.

한국불교융합학과-학문 통섭 실현 한국불교문화 전문 인력 양성 불교한문아카데미-불전 번역 교육 경전 등 3개반·총 6년 과정

1과목 추가 수강이 가능하다. 매년 선발과정을 거쳐 20명 안팎의 정규수강생을 선발한다. 이수과정별로 불교학술원장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된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이동환)이 참여해 강사 등을 파견한다. 이를 위해 불교학술원과 한국고전번역원은 구합 20일 고전번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학기 강사진으로는 성재현 한국불교전서연구위원, 양진석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관, 박태당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현 고전번역교육원 수석



1993년 8월 역경 연구생 사진. 불교한문아카데미는 이들을 잇는 역경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연구위원, 공인식 한국고전번역원 문집번역실장이 참여한다.

한편, 한국불교융합학과 학생은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인터뷰 및 추천서 발급은 1월 31일까지, 원서 접수는 25~31일까지이다.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 예정이다.

불교한문아카데미 기본과정 제1기 연구생은 1월 30일~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전형은 한문독해·면접을 거쳐 20명을 선발한다. (02)6713-5163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현대 한국불교학 연구 집대성

원각불교사상, '불학논총' 발간

현대 한국불교학자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학술논문집이 출간됐다.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중)은 최근 한국 천태종 중앙종인 상월원각(1911~1974) 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국내 외 저명학자 61명의 논문을 수록한 『불학논총』을 펴냈다. 책은 800여 쪽 분량 2권이 한질로 구성됐다.

『불학논총』 제1권은 '사상과 역사'를 주제로 논문이 편집됐다.

책에는 ▷보조사상의 특성과 그 현대적 의의(강건경) ▷원효의 미륵사상(강동균) ▷보운 의통의 구법과 전법(고영성) ▷다양성과 유연성의 불교(권오민) ▷『화엄경』의 성불론 재고(권탄준) ▷한중일 삼국의 근대화 좌절과 성공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비교 연구(김승일) ▷신경(神鏡)의 『전태법화소서』를 살펴봄(김영태) ▷고려전기 유불의 대비를 통한 시대성의 탐색(김용태) ▷신라와 일본 헤이안시대 불교사상의 교류(김천학) ▷『근본중송』에서 팔불연기가 비판하는 허론들(남수영) ▷서울 보타사 고려 마애존상(문명태) ▷『석가여래행적송』에 보이는 사십단(四悉檀)에 대한 연구(박소영) ▷화쟁은 어떻게 가능한가(박태원) ▷원족의 '집수(執受)' 개념의 이해(안성두) ▷돈황사본 『최묘승경경(最妙勝定經)』에 관한 고찰(오지연) ▷인식의 전환(다르마기르피와 태고보우의 깨달음(우재선) ▷천태 지의의 불신관(佛身觀)에 대한 일고(원필성) ▷중·한·일 삼국의 범화삼매의 전승과 수행(이기운) ▷조선 후기 불교사의 새로운 이해(이종수) ▷찬드라키르티의 『입중론』 제1환희지품 연구(이태승) ▷마하지관의 관심론(지창규) ▷『법화경』의 시교이희(示教利喜)와 그 현대적 모색(차차석) ▷원묘국사 요세의 백련결사를 통해 본 수행과 교화(재상식) ▷백제 후기 불교교학의 변천과 미륵사상의 성격(최연식) ▷『유가사지론』 '성문지' 산스크리트어 원전 연구(최종남) ▷한국의 마지막 왕사·국사 책봉과 의의(황인구) ▷자연의 불교적 관점(박경준) ▷당중기법화삼매고(칸다츠 치준) ▷천태종의 판교론(양정원) 등 29편의 논문을 담았다.

『민음과 수행』을 주제로 편집된 제2권에는 ▷십선계의 고찰(고우의) ▷상월원각대조사 범어의 체계에 관한 연구(이광도) ▷미래세계와 밀교(김영덕) ▷중국 근대 정토신앙의 세 가지 경향과 그 시대성(김영진) ▷천태대사와 상월조사의 교화사상 및 방법 비교 연구(김응철) ▷불교의 죽음이해와 그 극복(김재성) ▷조계종의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캠페인에 관한 비판적 성찰(서명원) ▷현대 천태종에 있어



『사상과 역사』·『민음과 수행』 나뉜 2권에 61편 논문 수록

지연) ▷불교율리의 미래지향적 정립방향 모색(허남경) ▷저출산 사회의 영유아 보육정책 분석과 개선과제(고수현) ▷법문사, 중국 마하보리승가법(현정주) ▷신라의 오대산 신앙(아오임) ▷겐신과 『심지관경』(미치모토 텃신) ▷선문학의 언어와 논리(스에키 후미히코) ▷일본에 있어서 일반인의 깨달음 체험과 그 활동(호리사와 소노) ▷붓다는 어떻게 가르쳤는가(아나다 W.P. 구루지) ▷상월대조사: 한국에서 관세음보살의 화신(케네스 리) ▷라빈 드라나트 타고르와 불교에 기반을 둔 범아시아주의 부활(판카즈 나렌드라 모한) ▷신라시대의 의식 불교(리처드 맥브라이드) 등 32편의 논문 32편을 실었다.

권기중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은 “이번 논총 발간은 현재 한국불교학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코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학문적 성과의 집대성은 우리 시대의 물론 미래 시대의 불교학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원각불교사상연구원은 2011년 11월 12~13일 금강대에서 열렸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정리해 『미래세계와 불교』를 펴냈다. (02)3460-5226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학회·불교학연구 공동워크숍

2월 13일 동국대 국제선센터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와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는 2월 13일 오후 1시 동국대 국제선센터(대각전)에서 '불교수행과 요가의 만남'을 주제로 동계 불교학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이평태 총남대 명예교수가 '불교수행, 건강, 요가' 등을 주제발표한다. (02)2260-3835

조동섭 기자

금강대 불문연, 범어 전문강좌 개설

2월 13~24일 '무료' 단기 집중 코스

초기불교학을 위한 필수고전어인 범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2월13~24일 금강대에서 제2회 산스크리트어 전문강좌를 무료로 개설한다.

강의는 수강생 수준에 맞춰 초·중·고 급반으로 나눠 금강대 HK연구교수(초급반), 김성철 HK교수(중급반), 박정환 교수(고급반)가 강의한다. 클래스별로 '데바나 나리프라베쉬카'(초급반), '임보리행론'(중

급반), '구사론'(고급반) 등이 교재로 사용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김천학 소장은 “단기간 집중 강좌를 통해 초급·고급에 이르는 범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후 팔리어, 티베트어, 한문 등 불교 4대 고전어에 대한 집중강좌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청은 2월 6일까지. (041)731-3628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사상

『문·사·철』 겨울호 출간

한국불교사상연구소(공동편집주간 권오민·고영성)는 최근 『문학/사학/철학』 겨울호를 출간했다.

이번 호에는 고영섭 공동편집주간인 권오민과 ▷티베트에 문명을 전파한 당나라 문성공주의 역사적 지위(구성희) ▷원효의 생애 재고찰(계미향) ▷『일반성의 철학』과 포노로지를 위한 시론(박정진) ▷피터 하비의 불교윤리학(김인겸) 등이 실려 있다. (02)2260-3583 조동섭 기자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념 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진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맡기합

천 의 선 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오는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 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합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든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물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의를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의를 받게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봉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